

“멕시코 대선 전후 폭력·시위 증가 예상 ...신변안전 주의”

멕시코에서 실시되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교민과 주재원, 여행객들에게 신변안전 주의령이 발령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전날 선거 관련 신변안전 주의 공지’를 통해 오는 7월 1일 대선과 총선 등 선거를 전후로 폭력을 비롯한 집회·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변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 1일 멕시코 전역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상·하원의원 등 총 3천400여 직위를 선출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후보자 등 정치인 114명이 피살되고, 1천 명 이상의 후보자가 사퇴했다.

멕시코에서는 과거에 선거 당일 투표소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선거방해 목적으로 신분증을 탈취하는 등 강도 범행이 자행되곤 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선거 직후 결과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도 예상된다.”며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경기 결과에 따라 군중심리에서 비롯된 폭력사태도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전후로 유세장, 투표소, 단체응원 장소 등 군중이 밀집한 장소 인근 접근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면서 “신변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 총리 부인 ‘공금 착복’ 혐의 기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내 사라 네타냐후 여사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 지역 검찰이 총리 부인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관저의 전 부실장도 사라 여사와 함께 기소됐다.

사라 여사는 총리 관저에 요리사가 없다고 거짓 보고하고, 개인 돈이 아닌 공금으로 전문 요리사의 요리를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금을 가족 행사 비용이나 개인 요리사를 고용하는 데 쓴 혐의도 받았다.

법무부는 사라 여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금액이 약 35만 셰켈(약 9만 6,5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했다. 사라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일가족은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지자와 유력 사업가들로부터 고가의 시가, 보석, 핑크 샴페인 등을 요구하고 100만세켈(약 27만 달러)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를 게재하기로 2위 일간지 ‘에디오투 아하로노트’의 사주와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경쟁지에 타격을 주기로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스캔들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이끄는 우파 리쿠드당은 2019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상업포경’ 재개 위해 안간힘 IWC 탈퇴 불사

일본이 일부 고래에 대한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23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에 열릴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개체 수가 풍부한 고래종류에 한해 상업포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는 모든 종류의 고래에 대한 상업포경이 금지돼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IWC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 고래 포획량 결정 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총회에서 자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IWC 탈퇴나 포경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 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IWC는 일부 고래종의 자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자 1982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일시 중지)을 결의했다. 상업포경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자원량이 안정돼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과학적 자료와 함께 총회에서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IWC 88개 회원국 중 포경을 지지하는 국가는 40개국이며 나머지 48개 국가는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포경단속조약 규정에 따라 남극해와 북태평양에서 조사 명목의 고래잡이를 하고 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